

만두 파동 그 후

다시 사랑받길 기대하며

만두는 조선중기 이전 중국에서 들어온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서민식품이다. 매년 명절 때면 어머니와 누님들은 정성들여 만두를 빚었다. 올 겨울에는 예전처럼 다시 만두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한 평수
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pshan@munhwa.co.kr

초여름 갑자기 터진 '불량만두'

지난여름 세상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세 가지 단어는 아마 '짬뽕더위'와 '아테네올림픽' 그리고 '만두'일 것이다. 10년 만에 찾아온 8월 폭염은 섭씨 35도는 기본이고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예사일 정도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다. 빙과류와 에어컨, 냉장고 등은 사상 최대판매량을 기록했다. 대지가 너무 뜨거웠던 탓인지 채소들이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고 말았다. 닭들이 더위에 지쳐 알을 제대로 낳지 못해 계란값이 100%이상 올랐을 정도니...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날라 온 한국선수들의 투혼도 무더위와 장기불황에 지친 국민들에게 한여름밤의 청량제였다. 유도 이원희의 한판 금메달,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탁구 유승민의 파워드라이브, 덴마크와의 여자핸드볼 결승전에서 연장, 재연장을 거듭하며 금메달보다 더욱 값진 은메달을 일궈냈던 한국 남자들, 특히 몇몇 아줌마 선수들의 승부에 대한 집념과 끝없는 도전정신은 두고두고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초여름 6월에 터진 '불량만두' 사건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다.

지난 6월 6일 "폐기처분해야 할 자투리 단무지로 만두 속을 만들어 전국 유명 만두업체와 분식체인점에 대량납품해온 악덕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경찰의 발표는 기하 충격적이었다.

"서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 "이제 뭐를 마음놓고 먹으란 말이나,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등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언론도 만두 업체를 일방적으로 몰아부쳤다. 만두업체의 입장은 언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국민들이 만두를 외면하자 깨끗한 원료를 사용,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두를 만드는 만두업체들도 덩달아 부도위기를 맞았다. 이같은 여론몰이에 항의, 급기야 한 만두업체 사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시 만두가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기자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포천의 S만두회사를 찾은 것은 6월 15일. 직접 만두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는 가장 큰 이 회사의 생산시설은 90%이상 멈춰있었고 직원들은 풀이 죽어 있었다.

“대부분의 만두업체들은 자기 아들, 딸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위생적인 만두를 만드는데...” “몇몇 미꾸라지 때문에 우량 만두업체까지 모두 망한다.”는 등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 회사를 방문했던 국회의원과 기자들은 두 번 놀랐다. 첫째 6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만두종류를 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한다는 데 놀랐고, 위생적인 생산시스템에 두 번 놀랐다.

“이런 회사가 만두 파동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생산시설은 멈추고, 직원들은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만 하다니...”

이같이 날벼락을 맞은 만두업체가 어디 S만두뿐이라. 기자와 국회의원들은 만두가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점심으로 만두를 맛있게 먹었다. 이어 방문한 인근 단부지 제조업체도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이었다.

이날 만두업계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까지 마구잡이 여론몰이식 보도를 한데 대해 얼굴이 화끈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9월초에 만나본 만두업계 종사자의 말은 잊을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쉽게 잊어먹는다는데. 이번 만두파동은 왜 이리 오래 기억하는지 몰라. 좀처럼 만두 판매량이 예전처럼 늘어나질 않아.”

만두는 조선중기 이전 중국에서 들어온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서민식품이다. 매년 명절때면 어머니와 누님들은 정성들여 만두를 빚었다. 특히 피자 등 서양식품이 판치는 세상에도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만두와 군만두는 최고의 간식이었다. 올 겨울에는 예전처럼 다시 만두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 굴뚝같다.

